

# 전문지 NEWS 클리핑



## ◎ 대한수의학회 영문 학회지 “세계적 권위”

### SCI 등재 학술지 중 논문영향력 상위 지수

대한수의학회(이사장 박용호)의 영문판 수의학회지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가 세계 수의학 분야에서 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톰슨사(Thomson Reuters)는 최근 주요 국제 학술지의 논문 영향력(Impact Factor, IF)을 평가해 발표했는데, 대한수의학회 영문판 수의학회지는 IF 0.937를 받았다. 이는 SCI 및 SCIE에 등재된 잡지 134종 중에서 53위에 해당하는 점수로 영문판 수의학회지가 명실상부한 국제학술지의 반열에 올랐음을 알리는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대한수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영문판 수의학회지만 SCI에 등재돼 있다. 박용호 이사장은 “앞으로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굴해 세계속에서 우리 수의과학의 위상을 높이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09년 7월 15일

## ◎ “돼지인플루엔자 적극적 방역정책 필요”

해외과학자 초청 세미나서 “복합감염시 큰 피해” 지적

돼지인플루엔자 질병관리 방안으로 효과적인 예방약이 보급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해외과학자 초청 세미나에서 주한수 미네소타대학 교수는

“돼지인플루엔자의 경우 단독감염에서는 병원성이 높지 않지만, 다른 질병과 복합감염되면 돼지호흡기복합병(PRDC)을 일으켜 양돈장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특히 임신돈에 감염 시 번식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돼지인플루엔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검색하고, 유전자 정보분석에 의한 예방약 생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를 통해 양돈장에 유입될 수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대처 방안(SOP)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09년 7월 15일

◎ 동물용의약품 규정 개정 추진

**품목 지정 미흡·등급 분류 부재 문제 많아**

동물용의약품의 관리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반려동물 산업 성장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수요확대로 이에 대한 품목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품목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품목지정 및 등급분류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검역원고시에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에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가 포

괄적으로 지정돼 있어 규정해석 시 어려움이 있다. 또한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약물관리과는 동물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키로 하고 연구용역 과제를 공모, 지난 3월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나기정 교수를 과제 수행자로 선정했다.

현재 나기정 교수와 용역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내 인체용 의약품 관리현황과 외국의 동물용의약품 관련제도 조사·분석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연구용역 과제 수행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9월 중 연구과제 중간평가가 실시되며 최종 결과보고는 12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물용의약품 평가에 적합한 규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해당품목을 명확히 할 수 있어 업무처리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등급지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 / 2009년 7월 15일

## ◎ 한국양돈수의사회 수의양돈포럼-사양관리에서 현장 리포트까지

한국양돈수의사회의 7월 수의양돈포럼이 지난 17일 경기도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양돈수의사들의 열띤 학구열과 함께 주한수미국 미네소타대학 교수를 초청,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강의를 진행되는가 하면 모돈영양과 사양관리에 대한 강의와 돈열,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한 현장 수의사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전하는 자리가 됐다.

### ■ 모돈영양, 포도당이 관건

홍중욱 (주)팜스코 축산과학연구소 R&T 팀장은 임신돈과 포유돈에 있어서 포도당의 역할 등을 자세히 소개하며 포도당이 임신과 포유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했다.

홍 팀장은 포도당이 임신기간 동안 뱃속에 있는 돼지에게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에 되며 임신돈에게 포도당을 공급하면 생시 체중에 영향을 미친다고 피력했다.

특히 실험 데이터를 제시하며 필드에서 임신돈에게 일 150~300g포도당을 급여했을 때 폐사율이 18.1%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임신돈에게 포도당을 급여하면 생시 체중의 균일도를 향상시키고 생시 체중 1kg 이하 자돈의 폐사율을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유돈의 경우는 사료의 에너지 공급원 차이가 모유 조성에 영향을 미쳐 자돈의 성장율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홍 팀장은 “포도당 함량이 낮으면 모유 내 지방 함량은 증가하고 단백질 함량은 감소하지만 포도당 공급량이 높으면 포유 자돈의 단백질 축적량이 높아진다”며 “포도당을 적절히 활용, 모돈의 영양관리를 해 주는 것이 농장의 전체 성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돈열에서 PRRS까지

유철연 CJ 돈돈팜 수의사는 돈열위험지역으로 악명을 떨쳤던 익산왕궁단지에서 발생한 돈열과 대처방안에 대해 전하며 실제 농장 사례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왕궁지역은 국내에서 가장 사육마리수가 밀집된 지역으로 지난해와 올해 돈열이 발생, 돈열 위험지대로 알려졌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돈열 항체 양성률이 99%에 달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곳이다. 유철연 수의사는 돈열로 전체 500마리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한 농장을 소개하며 돈열이 발생하면 신속한 살처분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출하전에만 백신 접종을 하는 농가들이 많아 정확한 일령에 백신을 접종하도록 계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소모성질환을 근절하고 거부반응이 적은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호철 발라드 동물병원 수의사는 모든 800

마리 규모의 농장이 성공적으로 PRRS에서 벗어난 사례를 자세히 전했다. PRRS 박멸을 위해 5단계의 ‘박멸 프로그램’을 구성, 1단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2단계로는 번식돈의 안정화 평가를 실시, 각 돈군별 혈청검사를 실시해 번식돈군의 순환 감염과 감염도를 평가해 안정화 프로그램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공 수의사는 “이후 번식돈을 안정화시키고 본격적인 돈군폐쇄를 가동, 매일 PRRS에 대한 모니터링을 유지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자돈사와 비육사를 비우는 디팝(depopulation)을 실시해 PRRS를 성공적으로 박멸한 것”이라며 “PRRS 박멸은 위생을 넘어서 생산성 보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희경 기자(nirvana@aflnews.co.kr)  
농수축산신문 / 2009년 7월 22일

◎ 축산식품 검사 능력 세계적 수준

검역원, 국제적 능력평가서 기술수준 인정받아

국내 축산식품의 검사 능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식품화학분석 및 축산물 중 미생물검사기술의 국제적 능력평가에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기술 수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지난 2월, 미생물 분야(FEPAS)에서 2종의 미생물(리스테리아, E. coli O157:H7) 검사 기술을 인정 받았고 6월에는 식품화학분석 검사숙련도 평가

프로그램(FAPAS)에서 3종의 물질분석(비타민, 무기물 분석 분야) 기술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축산물의 위해물질 검사 능력 평가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청에서 실시하는 검사숙련도 평가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아 세계 각국의 정부 및 민간 실험실에서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검역원은 지난 2005년 축산식품의 화학 및 미생물 시험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바 있다.

검역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축산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와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 검사숙련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결과들은 축산식품 중 위해물질 검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원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 / 2009년 7월 24일

◎ 대한수의사회, 수의축산연계 홍보강화 간담회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22일 경기도 성남의 수의과학회관에서 ‘수의·축산 현안 연계홍보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은 “사료값 폭등, 한·EU FTA 등 축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글로벌 시대에 이를 오히려 기회

로 삼아 세계속의 축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의계와 축산업계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의 축산을 책임지는 같은 운명으로 27개 축산단체가 소통의 문을 열고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천섭 대한수의사회 총장은 대한수의사회 주요추진 사업을 소개하며 산업동물 수의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 총장은 "수의학과 학생이나 젊은 수의사들이 산업동물병원 개원을 기피하면서 40세 미만의 산업 동물 수의사는 전체 진료수의사의 2.3%에 불과하다"며 "향후 10년 이내 산업동물진료수의사 확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를 해결키 위해 산업동물전문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업동물수의사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안희경 기자(nirvana@allnews.co.kr)  
농수축산신문 / 2009년 7월 24일

### ◎ 동약 부작용 안전관리 강화

#### 검역원, 동약등 부작용 모니터기관 54개소 추가 지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검역원)은 국내·외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의 부작용 등 안전성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여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기반을 구축하고자 '동물용의약품등 부작용 모니터기관' 54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부작용 모니터기관은 서울대공원을 비롯하여 수생동물, 야생동물 등 지역 및 축종을 고려하여 관련분야의 전문 동물병원을 추가했다.

검역원은 총74개소의 "동물용의약품등 부작용 모니터기관"을 운영하면서 동물용의약품등의 정상적인 사용시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 약물상호작용 등에 의한 유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품목허가(신고)취소, 회수·폐기명령, 허가(신고)사항 변경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물용의약품등 부작용 모니터기관"이란?

-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사용)시 인지되는 국내·외 안전성 관련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 및 부작용 등의 사례를 모니터링 하는 기관 : 동물용의약품등 부작용 모니터기관 지정 현황(총 74개소)
- 의무지정 기관(12개소) : 대한수의사회(1), 한국동물약품협회(1), 전국 수의과대학 동물병원(10)
- 선택지정 기관(62개소) : 중·대동물병원(28), 반려동물병원(23), 야생동물병원(3), 수생동물병원(4), 서울대공원 동물병원(1), 기타(3)

홍귀남기자(xd4078@hanmail.net)  
라이브뉴스 / 2009년 7월 31일

◎ 수년새 BVD 급증...축산농가 '경계령'

검역원, 지난해 23건 양성 확인...전년 대비 7배 늘어

감염땀 사료효율 줄고 설사·유산 일으켜  
적극적 백신 접종·양성우 조기도태 당부

수년 새 소바이러스설사병(BVD)이 급증, 축산농가에 BVD 경계령이 떨어졌다.

방역당국은 BVD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축산농가에 질병특징을 알리고 백신접종, 격리, 양성우 조기도태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해 BVD로 확인된 것만 해도 23건. 전년 3건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올 들어서도 질병발생이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유산 원인은 대다수가 BVD라고 검역원측은 설명했다.

검역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소의 뇌조직에서 BVD 바이러스를 검출한 결과 16.2%가 감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5%는 일생동안 바이러스를 배출해 다른 소를 감염시키는 지속감염우로 판단됐다. 2006년의 경우 지속감염우 비율이 1%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BVD 지속감염우 조기검색' 연구과제를 농식품부에 제안해 놓고 있다. 채택되면 사육소 감염상태, 지속감염우에 의한 감염경로, 원인체 정밀검사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BVD 감염소는 사료효율이 떨어지고 심할 경우 유산, 설사 등을 일으킨다. 혈류를 통해 태아에 감염되고, 생존해 태어난 송아지는 자연적으로 지속감염우가 된다.

■ BVD 예방지침

△외부침입으로부터 송아지 보호

- 분만 며칠전에 임신우를 깨끗하고 소독이 잘된 곳으로 옮겨 분만하며 초유를 먹기 전에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모우유방의 청결유지

- 모우의 유방을 깨끗하게 닦은 상태에서 송아지가 젖꼭지를 빨도록 유도

△충분한 초유와 영양 공급

- 분만된 송아지는 24시간 내에 어미로부터 초유를 섭취해 장관 내에 병원체에 대한 방어능력을 가지도록 한다.

분만된 송아지가 초유를 먹지 않을 경우 2시간 내에 송아지의 체중 Kg당 50ml의 초유를 인공적으로 포유

△지속감염우 검사방법

- 검사시료는 혈청 및 귀피부로 최소 3주 간격으로 BVD 바이러스 항원과 항체(항체는 모체이행항체 구분)를 검출하며 항원은 2회 양성이 확인되고 항체가 없으면 지속감염우로 판단

△지속감염우 도태권고

- 지속감염우의 경우 백신효과가 없으므로 도태하는 것이 바람직함



△백신접종

- 분만전의 모우에 2회 접종하거나 출생직 후의 송아지에 초유급여전 경구투여
- BVD의 경우 근절을 위해 우군전체를 불활 화백신으로 2회 면역한 후 바이러스에 대 해 면역반응이 없는 잠복감염우를 검색 도 태하고 송아지는 3~5개월령에 접종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 / 2009년 8월 4일

◎ <진단>산업동물 수의사 기피현상 심화

**수의학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매년 졸업하는 수의학과 학생들 중에 산업동물 수의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점차로 줄고 있다.



귀여운 강아지, 예쁜 고양이를 생각하며 수의학과에 진학하는 학생은 많지만 축산농가의 귀중한 자산인 돼지와 소를 생각하며 수의사가 되려는 학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일까. 현장의 산업수의사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수의사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 **수의사 중 70%가 반려동물, 산업동물 수의사는 20% 불과해**

1950~1960년대, 소 한 마리는 최고 부가가치를 지닌 최고 자산이었다. 당시만 해도 소가 집 한 채 가격을 호가했던 만큼 질병이라도 걸릴까 노심초사했던 건 당연지사. 수의사가 의사 못지 않은 대우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상황이 역전됐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국 동물병원 개설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351개의 동물병원 중 반려동물병원수는 2174개로 전체의 66%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산업동물을 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은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679개소에 불과하다. 문제는 병원 개수만이 아니다.

산업동물 수의사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대 이상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은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미만의 산업동물 수의사가 전체 진료수의사의 2.3%에 불과, 노령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산업동물수의사의 노령화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06년도와 대비하면 40세 미만은 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60세 이상은 3.5%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10년 이내 산업동물진료수의사의 확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는 업계의 견해도 무리는 아닌 것이다.

☞ 산업동물병원 문 열어도 일거리 없어

그렇다면 젊은 수의사들은 왜 산업동물 수의사가 되기를 꺼리는 걸까. 산업동물 수의사를 원하는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실제로 산업동물병원을 개원하더라도 진료 수요가 없어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수의사들의 전언이다.

박성오 대한수의사회 과장은 “수의사를 거치지 않고도 도매상에서 필요한 약품을 얼마든지 구입해 농가 자가진료가 가능하고 사료회사나 약품회사에서 진료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동물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이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의사가 줄고 있어 수의사는 일감이 없다고 하고 농가는 수의사가 없다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한수의사측은 지속적으로 산업동물수의사를 확보하고 적정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계속적으로 지적돼왔던 수의사의 질적향상을 위해 산업동물전문교육시설을 설치하고 농장전담수의사제도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윈윈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인 것.

또한 일본의 선진제도인 가축공제제도 도입을 통해 질병과 사고로 인한 축산농민의 손실은 보상해주고 수의사는 농업공제조합 단체의 직원으로 적절한 급료를 받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두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는 “가축공제제도는 산업동물 수의사의 확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일본은 국가가 치료비의 50%를 보조해주고 농민이 50%를 부담하는 보험을 드는 형태로 농민이 보험에만 가입하면 모든 질병을 가축공제조합에서 치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일본은 40년에 걸쳐 개업수의사들을 통합해 공제조합으로 흡수하는 작업을 해왔다”며 “조합을 통해 체계적인 질병관리는 물론 국가의 방역사업 일부도 맡고 있어 질병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